

# 강진군청 사이클팀,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 '종합우승'

금 3·은 3·동 3 획득...종합우승과 최우수 감독상 수상도 쾌거  
'창단 18년째 지휘' 박경춘 감독 '체계적 훈련통해 더 좋은 성적'

강진군청 사이클팀(감독 박경춘)이 제38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종합우승을 거두는 쾌거를 이뤘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나주시에서 열린 대회에서 군 사이클 팀은 금 3, 은 3, 동 3개를 획득해 최종 종합우

승을 차지했다.  
대회 첫날 열린 단체 추발경기에서 신동인, 김상표, 황범연, 배승민 선수로 구성된 단체팀이 1위를 차지했으며, 율리움 제외 1위(신동인), 팀포레 이스 10km 1위(배승민), 율리움스 크 레지 2위(황범연), 메디슨 경기 3위(김

상표) 등을 차지하며 최종 종합우승을 거두었다.  
또, 박경춘 감독은 이번대회 최우수 감독상을 거머쥐면서 스포츠 메카 강진군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창단 이후 18년째 강진군청 사이클팀을 지휘하고 있는 박경춘 감독은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욱 군수는 "부단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 선수들이 일궈낸 값진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대회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돕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광양시청 소속 육상팀, 금빛 출발

제25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이아영 400m '금메달'

광양시 직장경기부 육상팀이 지난 20~22일 3일간 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이아영 선수가 400m에서 56초 37의 기록으로 금메

달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아영 선수는 2020 전국단위대회에서 400m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꾸준한 성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는 최고의 선수이다.



광양시 직장경기부 육상팀은 6개 종목에 7명이 참가해, 1,600m 혼성 계주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박석별 선수(멀리뛰기)와 최재경 선수(3,000m 장애물)가 4위의 성적을 거둬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의 저력을

과시했다.  
조영진 체육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묵묵히 땀 흘리고 훈련에 임한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우리 선수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은 1991년 창단해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 등 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광양=심종섭기자

## '모트리 48점' 전자랜드, KCC에 45점차 대승 거둬 '벼랑 끝 탈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가 4강 플레이오프(PO-5전3선승제) 3차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반격에 나섰다.  
전자랜드는 25일 인천삼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주 KCC와의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4강 PO 3차전에서 112-67로 크게 이겼다.



적지에서 열린 1, 2차전을 내리 져던 전자랜드는 베테랑 가드 정영삼의 부상 이탈에도 3차전에서 완승, 베팅 끝에서 탈출하는 동시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아울러 2018~2019시즌에 이어 2회 연속 챔피언 진출 희망을 살려냈다. 전자랜드는 2018~2019시즌 창단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결정전에 나섰고, 2019~2020시즌 PO는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았다.  
역대 5전3선승제로 열린 4강 PO에서 1, 2차전을 내리 진 뒤 챔피언결정전에 나선 팀은 없었다.  
전자랜드는 경기 초반부터 크게 앞서간 끝에 역대 PO-챔피언결정전 최다 점수차 승리를 일궈냈다. 2005~2006시즌 4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TG 삼보가 삼승을 42점차(105-63)로 꺾은 것이 종전 최다 기록이었다.  
내외곽에서 모두 KCC를 압도했다. 전자랜드는 3점슛 23개를 시도해 13개를 넣은 반면 KCC는 30개 중 8개만 성공했다. 전자랜드는 1, 2차전에서 열세였던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42-24로 우위를 점했다.  
전자랜드는 2018~2019시즌 창원 LG와의 4강 PO 2차전에서 작성한 팀 PO-챔피언결정전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중전 111득점)도 갈아치웠다.  
조나만 모트리가 전자랜드 대승의 일등공신이었다. 모트리는 3점포 6방을 포함해 48점을 몰아쳤고, 9개의 리바운드를 견어냈다.  
48득점은 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을 통틀어 한 경기 한 선수 최다 득점 신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47득점이다. 1997~1998시즌 동양과 나래의 6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나래의 제이슨 윌리엄스, 2006~2007시즌 오리온스와 삼성의 6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오리온스의 피트 마이클이 47득점을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김낙현이 3점포 3방을 넣는 등 13득점으로 힘을 더했다.  
2020~2021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송교창의 결정에도 1, 2차전

을 모두 이겼던 KCC는 적지에서 열린 3차전을 내주면서 챔피언결정전 진출 확정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KCC에서는 라진아가 14득점 5리바운드로 분전했다. 전창진 KCC 감독은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자 경기 후반 이정현 등 주전 선수들에 휴식을 주고 벤치 멤버를 주로 투입했다.  
1, 2차전을 내리 진 팀 답지 않게 전자랜드가 경기 초반부터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갔다. 모트리가 1쿼터에만 15점을 몰아치면서 전자랜드는 25-10으로 크게 앞섰다.  
전자랜드의 기세는 2쿼터에서도 이어졌다. 전자랜드는 2쿼터에만 3점포 6방을 몰아치면서 KCC의 기세를 꺾었다.  
2쿼터 중반까지 10점차 이상의 리드를 지닌 전자랜드는 쿼터 중반 이후 김낙현, 모트리가 번갈아 3점포를 터트리면서 49-26까지 달아났고, 전반 막판 모트리가 골밑슛과 덩크슛을 연달아 꽂아넣으면서 57-26으로 전반을 마무리했다.  
KCC는 전반 종료 약 4분 30초 전부터 득점을 하나도 올리지 못했다.  
후반 들어서도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모트리와 김낙현, 정효근이 고루 득점을 올리면서 35점차까지 달아난 전자랜드는 3쿼터 중반 모트리가 3점포 두 방을 연이어 작렬, 71-34까지 점수차를 벌렸다.  
KCC가 좀처럼 반격하지 못한 가운데 88-48로 앞선채 4쿼터를 시작한 전자랜드는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KCC도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며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다.

## 고진영, 휴젤 에어 프리미어 LA 오픈서 3위로 마감



고진영이 2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윌셔CC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휴젤-에어프리미어 LA오픈 3라운드 5번 홀에서 티오프하고 있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26)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휴젤 에

고진영은 이날 9번홀을 마치면서 잠시 단독 선두에 올라서기도 했지만, 11번홀에서 보기를 범해 1위 수성에 실패했다. 이후 12번홀에서 보기, 14번홀에서 버디를 잡아냈지만, 더이상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1위 탈환에 실패했다.  
헨더슨은 마지막 날 4타를 줄여 LPGA 투어 통산 10승 고지를 밟았다. 제시가 코르다(미국)는 최종합계 15언더파 269타를 기록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들도 대거 상위권에 포진했다.  
유소연(31)은 최종합계 12언더파 272타로 공동 5위에 올랐고, 이정은(625)은 11언더파 273타로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랭킹 2위 박인비(33)는 6언더파 278타로 공동 15위, 세계랭킹 3위 김세영(28)은 5언더파 279타를 기록해 공동 17위에 자리했다.

## 2위 울산, 인천과 득점 없이 무승부...전북과 6점 차



울산 현대 이동준이 인천 유나이티드 수비수 강윤규와 경합하고 있다.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현대가 인천 유나이티드와 비기면서 선두 전북 현대 추격에 실패했다.  
울산은 2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인천과 득점 없이 0-0 무승부를 거뒀다.  
이로써 최근 3경기 연속 무승(2무1패) 부진에 빠진 2위 울산(승점 22)은 전남 강원FC와 비긴 1위 전북(승점 28)과의 승점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5경기 연속 무승(1무4패)으로 추락하다 지난 경기에서 성남FC를

3-1로 꺾고 살아난 인천은 이날 무승부로 2경기 연속 무패(1승1무) 흐름을 이어갔다.  
홍명보 감독의 울산은 김지현, 이동준, 김민준 스리톱을 세우고, 이동경, 윤빛가람, 신형민을 중원에 배치했다. 포백 수비라인은 김태환, 김기희, 불투이스, 김태현이 맡고 골키퍼 장갑은 조현우가 꼈다.  
홍철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벤치에는 김인성, 바코, 원두재 등이 대기했다.  
조성환 감독의 인천은 김현, 네게바

가 투톱을 맞고 아길라르, 박창환, 오재석, 이강현, 강윤규가 중원에 지켰다. 스리백에는 델브리지, 김광석, 정동윤이 섰다. 골문은 이태희 골키퍼가 맡았다.  
코로나19 감염에서 최근 회복해 복귀전을 치른 무고사는 이날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예상을 깨고 인천이 전반에 울산보다 더 많은 슈팅으로 경기를 주도했다. 7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이 중 3개가 상대 골문 안으로 향했다. 울산은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

겼다.  
인천은 전반 14분 프리킥 찬스에서 김현의 헤더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고, 전반 30분에는 오재석의 크로스를 네게바가 머리에 맞혔으나 조현우가 쳐냈다.  
울산도 기회는 있었다. 전반 25분 이동준이 상대 오른쪽 측면을 허문 뒤 연결한 크로스를 쇄도하던 이동경이 원발 논스톱슛으로 마무리했으나 크로스바를 넘어갔다.  
양 팀은 전반 31분 22세 이하(U-22) 선수를 동시에 불러들이고 베테랑을 투입하며 변화를 줬다. 인천은 박창환 대신 김도혁을 내보냈고, 울산은 김민준을 불러들이고 바코를 투입했다.  
울산은 전반 막판 이동준이 인천 델브리지와 경합 과정에서 밀려 넘어졌지만, 주심이 비디오판독(VAR) 심판과 회신 끝에 원심을 유지하며 경기를 그대로 진행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울산이 원두재, 설영우를 동시에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설영우는 들어오자마자 오재석과 경합에서 팔을 찌지만, VAR 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경고를 받았다.  
울산은 후반 3분 이동준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이동경의 침투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일대일 찬스를 잡았으나, 이태희 골키퍼에 막혔다.  
골이 터지지 않자 울산은 후반 14분 김지현 대신 김인성을 내보내며 공격의 고삐를 더욱 당겼다. 인천도 후반 25분 송시우를 교체로 투입하며 득점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 SSG "1위 원동력? 투수들 잘 버텨주고 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김원형 감독이 선전의 원동력은 투수력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SSG는 올해 뛰어난 집중력을 앞세워 경기 후반 좋은 승부를 펼쳐며 시즌 1위를 달리고 있다. 투수진은 말은 입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며, 추신수, 최주환을 영입해 장타력을 더욱 보강했다.

선전의 원동력은 투수력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김원형 감독은 "투수들이 잘 막아주고 있다. 중간, 중간 변수를 주다보니 팀 방어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도 투수들이 잘 버텨주고 있다"며 "타자들은 장타로 역전을 시키고 있다. 우리의 점수 빼는 공식은 장타"고 설명했다.